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본어판 japan.gnpnews.org
중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3. 6. 25 ~ 2023. 7. 15 제284호

인터넷 자율정책기구 KISO의 혐오 표현 가이드라인... 온라인판 차별금지법

현재 온라인 콘텐츠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혐오 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온라인판 차별금지법(차금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민일보에 따르면, KISO의 가이드라인은 인종, 성별뿐 아니라 '성적 지향'과 '종교'를 온라인상 혐오 표현을 규정하는 항목에 포함시켰으며,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등 16개 회원사에 적용된다.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이 가이드라인은 온라인상 혐오 표현과 관련해 인터넷 사업자 공통으로 처음으로 마련됐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대해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김승규 소장은 지난 14일 "이 지

침에 대한) 적용 대상에 국민 절대 다수가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이 포함된 만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차금법이 적용되는 효과가 있다."며 "기독교 관점을 담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소는 혐오 표현 규정 항목에 '성적 지향'과 '종교'가 포함된 데 대해 "이는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견과 배타적인 기독교 교리조차 온라인상에 게시할 수 없게끔 만들어 결국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로고스 임천영 변호사는 "헌법상 명확하지 않은 정의인 '성적 지

향'을 차별 사유로 규정하는 법률이 따로 없음에도 민간기구에서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해 제재하는 건 문제가 크다."면서 "법 제정이 어려워니 민간에서 적용해 보자는 것인데 차금법처럼 동성애 폐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내용조차 밝힐 수 없게 만들어 다수 국민의 표현과 종교의 자유에 재갈을 물릴 소지가 다분하다. '성적 지향' 등의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회언론회에 따르면, KISO는 기독교에 대한 온갖 혐오 표현인, 개독교, 개목교, 목사, 사막잡신, 개집 등 입에 담기 어려운 단어들에 대한 삭제 조치 요청에는 종교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며 거절한 반면, 지난달 2일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 대표 주요섭 목사의 다음메일 계정은 영구 정지됐다.

[GNPNEWS]



박재례 권사 (압해열방선교센터)

"14년간 매월 한 주간, 열방을 위해 기도해요"



전남 신안군 압해도에 위치한 열방선교센터를 찾았다. 태풍으로 무너진 창고가 안식관이 된 이곳. L국 선교사로 나가 있던 첫째 아들이 한국에서 지낼

러나 그보다 하나님을 위한 공간으로 쓰이길 바라며 손수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지은 곳. 돈이 없어 미장도 못해,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지만 이곳에서 1년 12달 기도의

불이 뜨겁게 지퍼지고 있다. 14년간 매월, 1주 동안 144시간 쉬지 않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박재례 권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4면에 계속



마음의 눈을 밝히사 (68)

복음의 증인이 있는 이유는 바로 당신 때문이다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했을 때 일본의 가미카제 공격을 받았던 함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의 공격이 있기 전, 모두 편안하게 지낼 때, 그 함선에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 신장 한 명이 수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독실한 신앙 때문에 갖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수병이 식사 기도를 하면 선임들은 식판을 치워버렸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여럿이 몰려와 조롱하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가 지나갈 때면 '저기 목사가 지나간다.'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병은 하나님 경외하는

태도를 잃지 않고 정한 시간이 되면 반드시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일본군이 가미카제 특공대를 보내 함대를 기습했습니다. 일본 전투기가 함선 굴뚝에 처박혀 배가 불길에 휩싸이고 침몰해가고 있었습니다. 다들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사람들은 수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옷이라도 잡으려고, 그의 몸에 손이라도 대려는 절박함으로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한 번 흔들어버리는 날

이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영원한 운명이 나눠질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음의 증인들을 세상 한복판에 세워두십니다. 바로 영원한 세상을 모르는 당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지금 바로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지금 바로 취하십시오. [GNPNEWS]



일러스트=김경선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복음의 소리 316전화

복음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1670-3160

운영시간 : 10시-22시
상담시간 : 40분

장난 전화는 삼가주세요

포토뉴스

차드!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에서 예수의 심장으로



▲ 차드 마플링 교회에서 만난 아이들. 제공: WMM

“기도” 하겠습니까. 인도자의 소리에 실눈이라도 떠질새라 손으로 두 눈을 꼬옥 누르고 기도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마음을 뭉클하게 한다. 이곳 차드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차드는 1960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했다. 그러나 부족 지도자들의 패권쟁탈전으로 인한 오랜 내전과 부정부패로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이라고 불렸다. 북부의 이슬람 세력과 남부의 기

독교 세력 간의 대립으로 30년간 내전이 계속됐다. 1982년에는 쿠데타로 권좌에 오른 하브레의 학정과 공포정치로 4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2015년에는 이슬람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IS)와 보코하람의 연쇄 테러가 발생했다. 2020년에는 이슬람 무장단체가 차드 분지 호수에 있는 차드군을 공격해 거의 100명의 군인들이 죽었다. 죽음의 그림자에 덮인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 차드를 예수 그

리스도의 심장으로 덮을 기도가 지금 이 순간 필요하다. 죽음을 뚫고 생명으로 일으킨 예수의 그 보혈의 능력이 간절히 기도하는 파수꾼들의 기도를 통해 차드의 온 땅 구석구석으로 흘러가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벧전 1:2) [GNPNEWS]

기독교인이 타종교인보다 ‘행복도·삶의 만족도 높아’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교인의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가 무종교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개신교인의 행복과 만족도가 타종교인보다 높았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지난 13일 발표한, 국민일보와 피앤아이 공동으로 실시한 ‘한국인의 외로움 조사’ 결과, 전반적인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에서 종교인이 100점 만점에 각각 65점, 63점으로 무종교인(59점, 57점) 대비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가 각각 6점씩 높았다.

특히 종교인 중에서는 개신교인의 행복도와 만족도가 타종교인들보다 2~4점가량 높게 나타났다. 개신교인은 각각 67점, 65점으로 나타났다. 가톨릭 65점, 62점, 불교 63점, 61점이었다.

종교인들의 3명 중 2명은 ‘종교가 외로움 극복에 도움을 준다.’고 답했다. 종교활동이 외로움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냐는 질문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한 종교인 비율



▲ 지난 6월 3일 빌리그래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 현장. © 복음기도신문

이 63%로, 무종교인(27%)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개신교인의 경우, 74%는 ‘종교가 외로움 극복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했다.

또한 외로움 극복에 대한 종교의 역할에 대해 2명 중 1명은 ‘영적 회복’을 꼽았다. 외로움 극복에 종교가 도움을 준다고 응답한 종교인들에게 ‘외로움 극복에 있어 종교가 하는 역할’을 묻은 결과, ‘영적 회복’이 49%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소속감’ 39%, ‘만족감’ 10%

등의 순이었다. 무종교인의 14%는 외로움을 느끼고 종교에 관심을 가진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외로움을 느끼고 종교에 관심 가진 무종교인)이 관심 있는 종교로는 개신교(35%), 불교(33%), 가톨릭(31%) 세 종교가 비슷하게 꼽혔는데 개신교가 약간 높았다.

[GN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궐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美 바이든, 잇따른 반성소수자 입법에 비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성소수자 인권의 달 기념식에서 성소수자를 겨냥한 입법이 봇물이 터지듯 하는 현실을 비판했다고 지난 12일 외신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전환 어린이들을 겨냥하고, 의사와 간호사를 범죄자로 만드는 수백 건의 부정적인 법안들에 맞설 필요가 있다.”면서, 인종·민족·출신 국가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것처럼 성적체성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도 규제한다는 내용의 ‘평등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미국이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키게 하소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미국이 되게 하소서.

이란, 7일간 13톤 불법 마약 압수... 마약 소매상 2384명 체포

이란이 최근 마약 밀매를 뿌리뽑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란 경찰의 마약 단속반이 지난 1주일간 전국 각지에서 불법 마약 단속 작전을 벌인 결과 총 13.19톤의 마약을 압수하고 마약 소매상 2384명을 체포했다고 이란의 IRIB통신을 인용, 뉴시스가 지난 12일 전했다.

주님, 잠시의 쾌락으로 영혼과 삶을 망가뜨리는 마약에 빠진 이란의 영혼들에게 진정한 만족과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주소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로 회복시켜 주소서.

韓 소아청소년과 의사 이탈... 소아 응급환자 비상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이탈 현상이 심해지면서 소아 응급환자들의 응급 진료에 비상이 걸렸다고 중앙일보가 지난 12일 전했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 이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신고 접수된 6438건 중 치료병원까지 50km 이상 이동 사례는 707건(약 11%)이다. 또 병원 도착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된 건은 358건(약 5.5%)으로 이중 심정지 2건, 경련·발작 22건 등 중증 응급환자 사례도 있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 의료 공백으로 위협에 처한 소아 응급환자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의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소서. 국가와 병원, 의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의 욕심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명을 갖고 환자를 돌보게 하소서.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3년 6월 26일 ~ 2023년 7월 15일

6월 26일 ~ 7월 1일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6.26~28(10~16시) ▶서울 마포 / 금강야산병원(이**)010-5248-4147, 6.26~30(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6.27(10~12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이**)010-5006-5529, 6.28(11~15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6.29(20~22시) ▶충남 서산 / 선한목자교회(최**)010-4828-3408, 6.30(10~17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그 외 7교회 진행중.

7월 3일 ~ 7월 8일 7.3~7(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7.3~8(10~20시) ▶서울 광진 / 빛과소금선교회(권**)010-7754-1726, 7.4(10~12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이**)010-5006-5529, 7.4~6(13~17시) ▶강원 고성 / 가마골교회(홍**)010-3191-8622, 7.5(11~15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7.6(20~22시) ▶충남 서산 / 선한목자교회(최**)010-4828-3408, 7.7(10~17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그 외 10교회 진행중.

7월 10일 ~ 7월 15일 7.10~14(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7.10~15(05~22시) ▶전남 담양 / 물맨동산교회(조**)010-6429-7027, 7.11(10~12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이**)010-5006-5529, 7.11~13(14~16시)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010-4715-3727, 7.12(11~15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7.13(20~22시) ▶충남 서산 / 선한목자교회(최**)010-4828-3408, 7.14(10~17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그 외 7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21세기 세계기독교 시대, 힘의 선교에서 약함의 선교로 나아가야

제8차 세계선교전략회의, 국내외 선교사 목회자 등 한국선교 방향 논의

“세계 기독교 인구의 절대 다수가 남반구에 거주하는 21세기에 나타난 ‘세계기독교’ 시대에 한국 선교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국내의 선교사와 목회자, 선교학자 650여 명이 참여한 제8차 세계 선교전략회의(NCOWE,엔코위)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개막됐다.

‘다시 그곳에서(엡 2:10)’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지난 2018년 대회 이후 5년 만에 열려,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선교상황이 달라진 이후, 한국 선교계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이사장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는 개회 예배에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승리주의에 도취해 있다가 코로나 기간을 거치며 지금 패배주의에 젖어 있다.”며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 답이 없다고 느껴진다. 또 교회는 사라지고 노회가 합병되는 세상이다. 하지만 예배소서에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다시 길을 찾아야 한다. 순수한 복음을 붙잡고 주님

선교가 외부로부터 가는 자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내부인 중심의 선교, 내부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를 세워가고 외부자가 이를 돕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한국선교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태도의 변화를 보이며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상철 카리스고차문화학연구원 원장은 2024년 서울에서 열릴 로잔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 선교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대위임령 성취를 위한 사역, 대위임령 성취를 촉진할 수 있는 돌파구나 협력이 필요한 분야 등을 조사해 8가지 주제가 선정됐다고 소개했다. 이처럼 전 세계 선교를 위해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로 문 원장은 사역의 돌파구 사례, 제자도의 중요성, 훈련의 필요성, 젊은이들에게 귀 기울이기, 상황화의 필요, 교회들이 외부 현실에 개입할 필요, 미전도종족의 복음화 대위임령의 의미 분명히 하기 등으로 모아졌다고 말했다.

홍현철 한국선교연구원 원장은 “1900년대 초반 한국교회가 처음 선교사를 파송했다. 1979년부터

식, 그리고 한국선교에 대한 반추와 본질적인 변화를 위한 질문과 세계교회와 협력 방법 등이 논의됐다.

이날 임태순 선교사(GMP)는 “2021년 현재 전 세계 기독교 인구 중 북반구(서구)에 사는 기독교인은 32.7%인데 반해 비서구 세계에 사는 기독교인은 67.3%로 이 같은 격차는 2050년이 되면 점점 더 벌어질 전망”이라고 전제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에서 기독교의 무게 중심이 서구에서 비서구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21세기의 새로운 기독교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 세계기독교”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세계기독교’는 서구가 그동안 근대 선교 운동을 통해 온 세상에 확산된 기독교가 아닌, 새로운 기독교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임 선교사는 “그동안 북미주 교회들이 주도하던 전형적인 서구 선교단체인 국제위클리프선교회(서구교회의 기독교를 내려놓고 세계기독교(지구촌기독교)로 전환된 상황에 맞게 조직적 틀을 개편, 단체명을 ‘위클리프글로벌연맹’으로 변경하고, 서구 선교사들이 갖



▲ 제8차 세계선교전략회의. © 복음기도신문

과 다리’라는 제목으로 전방개척선교 지역인 이곳에 선교의 돌파가 일어나지 못하는 원인을 현지 종교, 문화와 같은 외적 장벽 외에도 선교사들의 내적 장벽에 주목했다. 돈에 의존하는 선교는 복음의 왜곡을 가져오며, 인도의 경우 가난하고 검소하고 단순한 생활은 선교사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서양선교사들이 선교기지 또는 기독교 마을을 만들어 개종자들을 기존 사회에서 분리시키는 방식은 이들이 기존 가족과 공동체에서 복음을 전할 자연적 다리를 불태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인도에서 사역한 뽀잡 데이빗의 경우, 개종자들을 기독교

카 니제르의 산림녹화가 1980년대 호주 출신 토니 리나우도 선교사에 의해 주도된 사례와 남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조립사역을 통해 생태환경 회복을 이루는 지구지킴이운동(Earth Keeper Movement)도 네덜란드 개혁교회 선교사 마르티누스 대닐에 의해 주도됐다.”고 소개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풀뿌리 선교사로 순종해야

넷째 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선이란 주제로 한국교회, 선교단체, 선교사, 성도와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할 방안이 제시됐다.

손창남 선교사(OMF)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모든 선교적 행동을 하는 풀뿌리 선교사”라며 “이는 초대교회와 근대, 현재에도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선교활동”이라고 말했다. 손 선교사는 “이를 위해 모든 선교지역을 창의적 접근지역으로 간주하고, 돈으로 하는 힘의 선교가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연약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약함의 선교, 전 세계에 있는 800만 한인 디아스포라를 통한 풀뿌리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적 상황을 맞이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세계선교전략회의(National Consultation On World Evangelization, 세계복음화를 위한 국가 선교전략회의)는 1974년 로잔대회에서 제시된 세계복음화와 관련된 미전도종족선교 과업을 실행하기 위해 1989년 싱가포르에서 모인 모임으로, 그 이후 1995년(서울), 1997년(프레토리아)에 진행됐다. 1991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7차에 걸친 NCOWE회의를 통해 전방개척선교와 한국선교 방향을 제시해왔다.

[GNPNEWS]



▲ 제8차 세계선교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전 세계 선교사 파송국 현황(좌), 강의 이후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참석자들. © 복음기도신문

을 찬양하며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매일 예배소서를 본문으로 말씀강해를 시작, 주제 강의와 선교 현장의 케이스 스터디와 10가지 주제의 선교영역을 선택, 소그룹 토의로 진행됐다.

첫째 날, 선교와 거룩을 주제로 한철호 선교사(미션파트너스 대표)는 “그동안 기독교가 힘을 가진 세력으로 복음을 전하던 크리스천덤 시대를 경험한 이후, 지금 기독교가 남반구 대륙 전역으로 확산하고 세계기독교 시대가 열리며 힘에 의한 선교가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 시대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선교사는 “지난 시대의

10년간 한국인 선교사수가 93명에서 시작된 이후 2012년부터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최근 3년간 2만 2000여 명 수준에서 거의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선교사의 평균연령은 53.1세이고 60대 이상은 2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선교의 고령화는 한국 선교계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기독교, 21세기 새로운 기독교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

둘째 날은 한국선교와 세계기독교라는 주제로 이미 와 있는 세계기독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

턴 단체의 리더십을 과감하게 내려놓았다.”며 “한국선교 역시 앞으로 비서구교회로부터 파송되는 선교사들과 적극적인 연합과 동역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에서 기독교인 대신 ‘쁘레미’로 불러

셋째 날, 남겨진 과업, 발견된 과업이란 주제로 한국선교에 주어진 세계복음화의 과업 중에서 돌파하지 못한 지역과 영역과 사상과 문화를 살펴보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모델이 제시됐다.

진기영 아틸락선교연구원장은 ‘힌두교, 불교, 이슬람 선교의 장벽

인이라 부르지 않고 뿌레미(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전무했던 이곳에 10만 명이 넘는 교인과 교회를 세웠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이명석 교수(아신대/전 아프리카가나 선교사)는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1세기 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스페인독감의 생태적인 도전을 또 다시 겪게 됐다.”며 “인류가 기후와 생태환경의 변화가 우리의 삶과 생활양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절감하며 창조세계를 포괄하는 생명선교가 새로운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중앙아프리카





삶의 풍경을 통해 본 하나님의 은혜

24시간 기도의 불을 피우는 박재례 권사 (압해열방선교센터)

• 1면에 이어

올해 85세의 박재례 권사는 6.25 전쟁이 일어나던 1950년, 12살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문준경 전도사님이 옆 마을 병풍리에 오시면서 순교기념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무렵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뭘지 몰라도 열심히 다녔어요. 그때는 목사님들이 섬에 들어와서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식량이 없어서 가족이 다 같이 못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밥을 해드렸어요. 당시 목사님이 가장 좋아 보여서, 우리 자식들을 다 주의 종으로 바쳤어요. 감사하게도 지금은 두 자녀가 주의 종이 됐죠.”

문준경 전도사님이 옆 마을에 오시면서 예수님 믿어

박 권사가 느헤미야52기도를 알게 된 것은 막내 딸인 강은선 전도사가 순회선교단 훈련을 받으면서부터다. 느헤미야52기도는 기도 24·365본부가 제안한 기도의 식양 중 하나로, 일주일 동안 복음의 영광, 박해를 이긴 교회, 다음세대, 열방에서 일어나는 죄와 선교, 영적 전쟁 등의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연속해서 진행되는 기도식양이다. 강 전도사는 어느 날 한 가정집에서 느헤미야52기도를 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게 됐다. 강 전도사는 심장이 두근거렸다고 했다. 이런 기도는 큰 교회 같은 곳에서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느헤미야52기도!’ 강 전도사는 안식관을 지어놓고 이곳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2009년, 기도24·365 완주예배에 참석한 강 전도사는 안식관에서 느헤미야 기도를 하겠다는 작정서를 냈다. 그 당시 안식관의 이름은 없었다. 그 자리에서 이름을 지었다. “우리는 열방을 위해 선교하면서 살아야 하니까 ‘열방선교센터’로 해야겠다.” 처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만 해도 된다

고 안내가 됐다. 그러나 1년에 한 번만 하고 나머지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적어도 계절마다 1번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4번을 작정했다. 그렇게 2010년부터 느헤미야 기도가 시작됐다. - 쉽지 않은 결단을 하셨네요.

“1년 동안 기도를 하고, 2010년에 기도24·365 완주예배에 갔어요. 거기서 느헤미야 기도를 또 작정하라고 했을 때 힘들었어요. 처음엔 나는 못한다고 했어요. 계속 작정하라고 하길래 작년에 한 것처럼 4번만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김용의 선교사님 말씀을 듣는데,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졌죠. 그러면 1년에 6번을 하겠다고 작정했어요. 우리집이 겨울에는 춥거든요. 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6개월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한 달에 한 번씩 해보니



▲ 이웃치로 방문한 인도에서 느헤미야52기도 시간에 함께 한 지체들. 제공: 박재례

까 괜찮더라고요. 나중에는 1년에 12번을 하자고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기도를 안 했으면 맨날 농사일만 하다가 인생이 끝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1년에 4차례 한 주간 기도

-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도 많을 것 같은데요?

“혼자서는 기도를 못 한다고 생각했어요. 막내딸이 있으니깐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배운 게 없는데, 손자들은 말씀

도 잘 나눴어요. 그러면 내가 위축돼요. 손녀들에게 얽잡아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기도를 할 때 많이 즐기고 했어요. 하루는 밤 12시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주님이 ‘너는 내 일을 그만하고 내 일을 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속으로 ‘나 같은 사람한테 어째서 기도를 계속 하라고 하냐.’라고 생각했어요. ‘네 기도는 마음에 안든다.’고 하실 것 같았거든요. 기도도 잘 못하고 늘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은 잘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됐어요. 잘 할 줄도 모르는 나에게 주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기도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기도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졌어요. 복음학교에서 은혜 받기 전에는 나는 여러 시간 못한다고 딸에게

으름장을 놓기도 했거든요.”
- 복음학교에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2006년도에 처음 복음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나의 죄 된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화가 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화가 나는 것을 보면서 안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복음학교 섬김이를 갔는데, 그 때 2000년 전에 나의 옛 자아를 죽은 자로 여기라는 말씀을 듣게 됐어요.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죽은 것을 여기라는 것이구나 깨달아졌죠.

그리고 얼마 후, 기도를 하려는데 딸이 광주에서 열리는 중보기도학교 섬김이를 간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 기도 못한다.”고 했어요. “난 아직 얘기 수준이다. 나를 도와줘야지, 얘기한테 혼자 하라고 하면 되겠냐.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혼자 기도했어요.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기도를 하고 잠깐 나와서 하우스에 가봤어요. 과일 모종들과, 고추 모종은 4000주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잘 돌봐야 했어



요. 그런데 전날까지 잘 있던 모종들이 기도하다가 문을 못 열어 줘서 한낱 뜨거운 열기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걸 보는데 ‘고추가 다 죽었네. 나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죽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마음에 평안이 와 버렸어요. 고추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평안해요. 하나님께 다 맡겨 버려야지,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면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많은데, 다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온 거예요.”
- 고추가 죽은 것을 보고서 복음을 깨달으신 거군요.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혼자 기도를 하는데 그 전에는 기도를 내 힘으로 하니까, 딸 없이 혼자서는 못할 것 같았는데, 옛 자아가 죽었다고 여기니까 24시간이 아니라 일주일도 혼자 하겠더라

어요. 어느 날은 우리집 연탄불을 빼놓기도 하고, 우리 비닐하우스도 몇 번 찢었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는데, 이들과 어떻게 싸우겠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기도만 했어요.”

해코지하던 이웃도 기도하며 축복하게 돼

강 전도사는 제초제로 고추가 말라 죽은 때를 회상했다. 선교 훈련을 받으며 강 전도사와 박 권사는 오만과 대만으로 선교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집에 돌아와 고추 농사가 풍년이 된 것을 보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왔더니 주님이 우리의 일을 해주셨구나.’라며 기쁘게 고추를 따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제초제가 든 농약을 뿌린 것이다. 다 말라 죽은 고추를 보고 강 전도사는 부모를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몰랐다. 기도도 안됐다. 무작정 성경을 펴고 아무 데나 읽기 시작했다. 디모데전서를 읽는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말씀이 들어왔다. 자신이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리고 열방의 미전도종족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이웃집 아저씨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강 전도사는 어머니에게 이웃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자고 제안했다.

“그 집을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을 부르고 기도해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 일찍 모두 세상을 떠났어요. 그들이 가고 나니까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그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소리 한번 해줬어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계속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말을 못했어요. 그게 제일 하나님께 죄송해요.”
-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셨네요. 오랫동안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14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깨닫게 돼요. 이 기도를 10년이 넘게 했는데도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구나 생각해요. 상부에서 오라 그럴때까지요.”

- 끝으로 기도 제목 말씀해주세요.
“열방이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 모두 주의 일을 앞서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GNPNEWS]



Y.K.



▲ 사랑하는 남편, 막내딸과 함께. © 복음기도신문



선교 통신

그리스 난민들,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져

2001년 겨울, 그리스에 건너온 배고픈 무슬림 난민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고 복음을 들었던 난민들 가운데 복음을 영접하는 난민들이 생기면서 2003년 난민교회 개척됐다.

그리스에 건너온 난민들은 복지 혜택과 자녀 교육, 그리고 일거리를 구할 수 있는 복유령으로 건너가기 전까지 이곳에서 잠시 정착하려는 사람들이다.

그 가운데 우리 난민교회 성도들은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실 거라는 신명기 말씀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복음 안에서 성장하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됐다.

이를 훈련하기 위해 몇몇 동역자들과 함께 2017년부터 난민 성경학교를 시작했다. 봄과 가을 2학기, 매 학기에 12주 과정, 일주일에 4일 하루에 3시간씩 성경을 가르치며 성경공부 모임을 만들고 인도하는 훈련 과정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이런 과정 가운데 2020년 코로

나로 성경학교가 온라인으로 운영됐다. 2022년에 국경이 열리자 그동안 복유령으로 올라가지 못하던 사마리아 열방 난민교회 성도들이 대거 유럽으로 이동했고, 이들도 정착한 나라에서 온라인으로 성경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주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훈련의 시작

최근에는 저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다시 도전을 주고 또 성경공부 모임을 만들고 인도할 수 있게 하는 재교육과 네크워크를 만들기 위해 모임을 세울 필요성을 깨닫게 됐다. 그래서 8월 25~27일 독일에서 이 모임을 갖기로 결정하고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유럽에 정착한 난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이 증거되고 부어지도록 기도를 요청한다.

지난달 말, 이번 컨퍼런스 준비를 위해 독일을 방문했다. 선교사님을 통해 컨퍼런스 장소와 숙소 그리고 집회에서 사용할 음향 장치 등 점검을 하며, 가능한 착오 없이 모임을 갖게 하셨다. 또한 컨퍼런스를 같이 준비하는 이란인 형제



▲ 그리스 아테네 광장에서 행인들이 오가는 모습. 출처: Hert Niks on Unsplash

의 집을 방문했다. 이 형제는 그리스에 있을 때도 신실하게 도움을 베풀었다. 이틀 밤을 형제 가족 집에서 머물며, 그 지역에 사는 아프간 사람과 이란 사람들을 초대해 음식을 먹으며, 밤늦게까지 전도했다. 다음 날에는 형제가 순회 전도하는 2개의 난민 캠프를 방문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디도서 3장 3~7절 말씀을 읽으며 간증 전도를 했다. 한 자매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해 와서 함께 영접 기도를 했다. 한 형

제는 디도서 말씀의 간증을 들으며 자기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보게 됐고, 이것들을 어떻게 씻는지 질문해왔다. 그래서 그 형제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디도서 말씀을 증거하며 전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만나는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이번 독일 방문을 통해 난민들이 복음의 동역자로 세워짐을 보며

더욱 기도하게 된다. 그리스에서의 난민 사역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는 난민들이 세워지고 있다. [GNPNEWS]

그리스=양용태·김미영 선교사

복음의 능력

주님 뵈을 날을 예비하라

언젠가 A.W.토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레오나드,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뵈을 때 그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네. 우리 모두는 고개를 숙일 것이네.” 정곡을 찌르는 말이다. 주님의 보좌 앞에 설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한 일들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지 않고 방치해 둔 일들도 보게 될 것이다. 중요한 일들은 소홀히 하고 사소한 일들에 난리를 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의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육신에게 지배 당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뿌연 유리를 통해 보는 것처럼 대중 깨닫는 것에 만족하며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고뇌하고 몸부림치며 기도의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폭신한 소파에 기대어 편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GNPNEWS]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하라 (레오나드 레이븐힐)’에서 발췌

선교 현장

공연음란죄 있는데 퀴어행사 가능한가?

대구지법 민사20부(엄성환 부장판사)는 동성로상점가상인회,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등이 퀴어축제 주최 측인 무지개인권연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법원은 “집회 개최로 제한되는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표현의 자유 정도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올해 퀴어행사가 6월 17일 대구에서 진행하는데 법적 제약은 사라져, 퀴어행사를 반대해온 기독교계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숙제를 맞게 됐다.

퀴어 퍼레이드가 논란이 되는 대목은 또 있다. 바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분이다. 퀴어 퍼레이드의 목적은 성소수자가 당당히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제고와 거부감을 없애는 것에 있다.

그러나 오히려 퀴어 퍼레이드가 지나친 선정성으로 시민들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과학적인 의상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 주최 측의

설명이다. 그간 차별받고 억압받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날 하루만큼은 당당히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차별에 맞서 저항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퍼레이드의 참여자들도 ‘함께 사는 사회’를



▲ 지난 6월 초, 대구 동성로에서 동성애행사 반대 서명과 1인 시위가 진행됐다. 제공: 윤군도

위해서 선정성 논란에 대한 해결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인 것 같다.

1970년대 동성애자들의 행진은 일반적인 퍼레이드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1990년 퀴어 선언문에는 “내년에 우리는 알몸으로 행진합니다!”라는 문구가 있다. 그리고 점점 더 음란성을 띠

게 되었고 2001년에 한국에서 서구의 게이 퍼레이드를 도입하면서 명칭을 ‘퀴어 축제’라고 하더니 노출 수위를 조금씩 높였다. 2014년에 신촌에서 하면서 사람들은 그 적나라함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됐다. 대체 평소에 어떻게들 논다는 건가 아연실색하게 된 것이다. 한국은 일본의 게이 클럽 문화도 큰 것 같다.

퀴어행사 주최 측의 표현의 자유의 의미를 해석하면 음란하게 돌아다닐 자유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가 있다. 판사의 표현의 자유에 참가자들의 공연음란행위가 포함되는 것인지를 따질 필요가 있어 보인

“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음란공연은 헌법이 제한하는 사항이다 ”

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나 음란공연은 헌법 제 37조의 ‘권리 제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계몽활동이 없었다면 집회의 음란성이 어디까지 갔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GNPNEWS]

S.Y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오직! 절대! 전부의 복음! (2)

영적 사냥꾼의 공격을 이길 힘 “오직 십자가”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른 채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이방인 갈라디아 지역 안에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외쳐진 복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퍼져 나갔다. 그리고 핍박과 환란 중에서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도저히 불가능했던 그 지역에 처음으로 던져진 복음의 씨앗이 성령의 크신 권능으로 충격적이고 감격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면서 여러 교회들이 생겨났다.

핍박과 환란 중 생겨난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 출신이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알아듣고 충격과 감동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얼마 되지 않은 교회들이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의 반응을 보이고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교회가 생겨나면 거기에 교회를 흡수

려고 하는 일도 같이 일어난다. 유대인들 가운데 믿긴 믿었다고 하지만 스스로 아주 정통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와서 바울이 떠나고 없는 사이에 이제 새롭게 태어나 역동적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헤집어 놓기 시작한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의 뿌리를 뒤흔들어 놓기 시작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오직 십자가만 가지고는 안 된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존립이 어려울 만큼 큰 충격과 혼돈에 빠지게 되었다.

그들을 향한 혼돈케 하는 거짓된 도전 속에서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던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간단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선포한다. 진리에서 빛나가고 섞이고 혼돈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영적인 사냥꾼들을 향해서, 거기 미혹되어

있는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제시한다.

거짓된 도전 속에서 교회들을 향한 강력한 선포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예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갈 6:14~18) (2018년 8월) <계속> [GNPNEWS]

김용익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일러스트=이예원

2023학년 헤브론원형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 안내

헤브론원형학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진리를 위해 싸우는 다음세대 선교사들의 행복한 학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다음세대 선교사들은 응답하십시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 모집 대상**
 - 2023학년 7월 기준, 초등학교 4학년(2013년생)부터 중학교 3학년(2008년생) 연령대의 학생. 단, 고등학교 1학년(2007년생)은 1년 하향지원 가능합니다.
 - 선교사로의 부르심이 분명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각각 자발적으로 본교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
- 입학설명회**
 - 2023년 7월 1일(토) 오후 2시~5시, 장소는 「입학 설명회 참가 신청자」에게 개별 공지합니다.
 - 입학설명회 참가 접수 기간: 2023년 6월 5일(월)~2023년 6월 24일(토)
 - 참가신청은 이메일(hebronschool@hanmail.net)로 접수 바랍니다.
 - 입학설명회는 지원하는 학생과 양 부모님 중 한 분은 필히 참석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는 별도로 아래 문의처에 문의 바랍니다.)
- 원서교부**
 - 입학원서는 입학설명회 당일 현장에서만 교부합니다. (입학원서 전형료 5만원)
 - 원서접수기간: 2023년 7월 1일(토)~2023년 7월 21일(금) 소인까지 받습니다. (해외 거주자는 별도로 아래 문의처에 문의 바랍니다.)
- 입학전형 일정**
 - 1차 서류심사 및 1차 합격자 발표: 2023년 7월 29일(토)
 - 2차 'Camp, Go up to Hebron!': 2023년 7월 31일(월)~2023년 8월 4일(금) (Camp기간 중 면접과 시험이 포함됩니다.)
 - 2차 합격자 발표: 2023년 8월 5일(토)
 - 3차 최종면접: 2023년 8월 7일(월)~2023년 8월 9일(수) (2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2023년 8월 12일(토)
 - 2023년도 입학식: 2023년 8월 29일(화)
- 문의 및 접수처**
 - 입학사무처: 010-2461-1718, 010-7323-4641, 070-4369-7656
 - hebronschool@hanmail.net
 - (우)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2길 168-66 헤브론원형학교 (쿠 시온수양관)

내 손 안에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app

복음기도신문

복음기도신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해요!!

GPM 복음기도신문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복음기도신문'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용서를 구해야겠다고 결심하자 남편이 먼저 용서를 구해왔다

살아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했다는 깨달음이 왔다. 나는 4대째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 하나님을 날 창조하신 것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다면 한 번뿐인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싶어 열방으로 나온지 20여 년이 흘렀다.



일러스트=고은선

인격적으로 복음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면서도 오직 내 영광,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한 열심이었다. 복음을 만난 이후, 삶은 달라졌다. 온 맘을 다해 믿음으로 달려가며 승리와 기쁨을 누리던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어느새부터인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 시간이 나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보다는 핸드폰을 찾는 나,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나를 발견한다. 절망스러웠다.

도대체 왜 이렇게 나의 믿음은 연약하고 계속해서 넘어지지 않을 반복하는가? 나는

나를 믿고 있었던 것 같다. 내 힘으로 지키고, 내 힘으로 견뎌내고, 내 힘으로 거룩해지고, 내 힘으로, 내 힘으로... 그래서 나에게서 완전한 죽음이 필요했다. 주님은 그런 나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셨다. 그것이 나에게 완전한 복음이다.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나는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초마다 나를 추구한다. 그것이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였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라고 착각했다. 믿음과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지극했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근 갈라디아서 강의를 듣기 전, 남편과 다툼이 있었다. 남편이 기분이 상해서 일방적으로 화를 냈다. 나 역시 마음이 상했다. 그런데 강사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렸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잘잘못을 계산하던 복잡잡한 머리가 '맞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 못 할 것이 있겠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무슨 자존심이 중요하냐?' 생각이 들자 갑자기 자유와 평안이 찾아왔다.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 남편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자.'라는 마음이 들었고 주님께 도움을 구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남편이 먼저 용서를 구했다. 나도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먼저 말해주서 고맙다고 했다.

그동안 남편을 사랑하려고 애를 썼지만 늘 내 마음 안에는 내가 남편보다 더 낫다는 나의 의와 분노가 쌓여 있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해보니 그간 율법적으로 순종했던 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없었구나. 그리고 그건 선한 일이 아니라 복음에 반하는 악한 것이었음도 깨닫게 하신다. 내가 나를 보면 지독히도 나만 사랑한다. 그렇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진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못할 것이 없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오직 내 안에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주님 사랑하기에 율법을 지키고, 주님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기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한다! [GNPNEWS]

김영미

북한 부흥을 위하여

'생활고' 北 주민들, 한국 가족에 "도와달라"

한반도에서 지금 가장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개인의 어떤 자유도 없는 북한 주민과 그 땅을 떠난 탈북민이다. 북한인권 개선이 이뤄지는 그 날을 위해 기도하자. <편집자>

북한 주민들이 생활고가 심해지면서 한국에 있는 가족과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서울 거주 탈북민 이혜선(가명) 씨는 "북한에 있는 부모나 형제가 걸은 전화를 받는 탈북민이 늘어나고 있다."며 "전화는 하나같이 생활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밤, 4년 만에 북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요 몇 년간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면서 "어머니가 숨을 쉬니 살아있구나 하고 느낄 뿐이라며 북한은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양강도가 고향인 인천 거주 탈북민 정철민(가명) 씨는 "6일 브로커를 통해 외삼촌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며 "외삼촌도 생활이 너무 어려워니 조금만 도와달라고 하셔서 많지 않지만 돈을 보내줬다."고 했다.

그는 외삼촌 말에 의하면 "코로나 이전까지 관찮게 살던 사람들도 하루하루 넘기 어려워한다."며 "요즘은

강냉이밥이라도 먹는 집은 정말 잘사는 집"이라고 언급했다.

지난달 중순 평양 강동교화소(4호 교화소(교도소))에서 '모내기 전투'에 동원된 교화생 2명이 사망했다고 데일리NK가 지난 9일 전했다. 이들은 원래 허약(영양실조) 상태에 속했던 교화생이었다.

교화소 측은 부업지들의 씨불임(파종) 속도가 더디다는 판단에 따라 '어떤 사유에서든 모내기에 참여하지 못한 교화생들을 처벌할 데 대한' 지시를 지난달 초

정 씨는 이어 "설사 돈이 있어도 장에서 쌀, 기름을 구하기 어려워 주민들은 고

내림에 따라, 이들은 새벽 5시부터 밤 8시까지 논밭에서 일하고 돌아와서는 또 한 시간가량 실내 작업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정신 차리고 죽더라도 받아내 현장에서 일하다가 죽으라."는 으름장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열이 40도가 넘었는데도 아프다는 내색을 못하고 현장에 나가 일하다 끝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나 기름 같은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입에 풀칠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심각

교화소 측의 과중한 업무 지시와 공포 분위기 조성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별다른 개선 조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교화소 측은 뉘우침이나 개선의 마음을 가지고 참가하지 않은 교화생들에게는 대량단속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전국적 총동원 기간 주민들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데 죄를 지은 죄수들은 일을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GNPNEWS]

北 교화생 2명, 영양실조 상태로 '모내기 전투' 동원됐다 사망

더 해서 죄를 씻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교화소는 정치범과 경제범, 강력범이 함께 수용되는 곳으로, 수감자들은 공민으로써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다. 다른 지역 교화소에서도 영양실조는 물론 동사, 질병, 보안원 폭행, 탄광 붕괴, 가스로 인한 질식사 등으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GNPNEWS]

복음의 소리 1670-3160

워크숍
자상증제

이 코너는 GPM(복음과기도미디어)이 운영하는 복음의 소리 316 전화(1670-3160)가 진행한 '신앙 상담 시에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정신의학' 주제로 열린 상담자 세미나(강사 권서영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도파민 과다는 조현병, 도파민 부족은 파킨슨병

+ 신앙 상담 시 도움이 되는 정신의학 (15)

조현병(調絃病)이 있는 경우 환청, 망상과 함께 말하기 영역, 행동 영역에서도 증상이 생긴다. 말하기 영역에서 보면 대화할 때 상관성이 떨어지는 대화 양상을 보인다.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자기 얘기만 계속하는 경향이 있다. 일관성이 떨어져 앞뒤 얘기가 잘 이어지지 않고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정말 얘기하고자 하는 주된 주제에 도달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한다. 이를 우원증(迂遠症)이라고 한다.

행동 영역에서는 환청에 대한 반응이 있다. 점차 환청이 심해지면 현실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혼잣말을 하기도 하고 환각이나 망상에 반응하여 이상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의 감정 반응이 부적절할 때가 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화를 낸다거나 혹은 웃음이 터지기도 한다. 또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위생 관리나 이발과 면도 등, 기본적인 예의에도 전혀 무신경해진다. 또한 철학, 종교적인 주제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혼자 고립되어 가면서 피폐해지는 경우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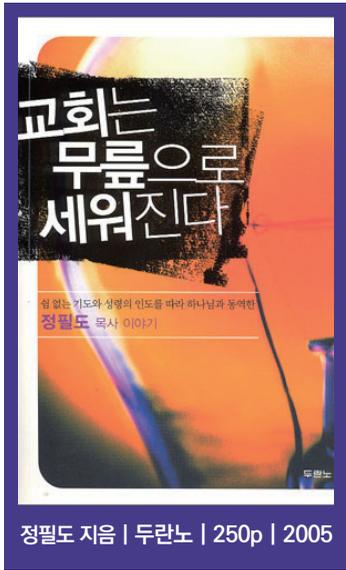
조현병은 원인을 한 가지로 단순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쉽게 말하면 뇌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생물학적 질환으로, 도파민 신경전달물질의 과다분비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따라서 도파민을 줄여주는 약을 사용하여 치료한다. 그러나 약의 용량을 너무 높이면 부작용이 따른다.

파킨슨병은 뇌의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의 소실로 인해 발생하는 퇴행성 뇌 질환이다. 파킨슨병 환자는 종종 걸음을 걷게 되고 허리가 구부정하게 되고 표정도 둔해지고 손이 떨리는 증상이 있다. 일반적으로 도파민 부족으로 생기는 파킨슨병은 신경과 질환으로 인식하는 반면, 도파민 과다로 생기는 환청이나 망상에 대해서는 영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조현병은 영적인 현상이 아니라 신체적인, 생물학적인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 <계속> [GNPNEWS]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정필도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기도의 눈물이 채워져야 예배당이 채워집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어수선했던 어느 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던 기도의 사람, 정필도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듣게 되었다. 갑자기 이전까지 막연히 알고 있던 그분에 대해, 또 인생과 목회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의 삶

을 놓치지 않았던 증인의 삶이 내 마음에 울림이 되었다. 그의 자전적 고백인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라는 책 제목에서부터 직감했다.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 일에 기도가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말이다.

기도의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짝 잡힙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찢어지게 가난했던 가정. 일가친척이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무지함 속에 임했던 주님의 은혜는 초등학교 6학년 소년이었던 그를 기도예 목숨 거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학창 시절 내내 등록금조차 낼 수 없는 형편은 그를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만드는 재료가 되었다.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고, 어떤 문제든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던 것이 그의 삶이었다.

신학교 시절에 섬긴 개척교회에서 만난 집사님 한 분의 말이 그에게 평생 동안 목회의 근간이 되었다고 한다. “전도사님, 예배당에 교인들이 짝 차기를 바라십니까? 기도의 눈물이 여기에 차야 예배당이 찬답니다.” 그 얘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걸 보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에 그날 밤부터 철야 기도를 시작했고 강단 앞에서 울기 시작했다. ‘될 수 있는 한 많이 울면서 기도해야지.’ 죽어 가는 영혼들을 구원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또 양 떼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밤새도록 기도했다. 울며 기도해야겠다고 작정한 만큼 기도할 때마다 신기하게도 눈물이 쏟아졌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3개월 만에 더 이상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예배당이 차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깨달았다. 목회자는 영혼들을 품고 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교회를 눈물로 채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사랑의 사람

책에서 그는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학벌 좋은 사람도 많지만 사랑 많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은 영혼 사랑의 열정을 품은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심을 말하고 있다. 그저 입술의 말이 아닌,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사랑의 사람을 가장 크게 사용하신다고 말이다. 그러면서, 많은 주의 종들이 어떻게 실력을 쌓을지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더 많은 능력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그 생각과 고민의 이면에는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목회자로서 많은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신의 멋진 모습을 상상한다고 하면서 말이다.

교회를 위해 사랑으로 희생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교회를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은 다른 것 묻지 않으시고 오직 그것을 물으신다고 한다. 수많은 사역의 열매들을 기대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물들을 성급하게 얻으려는 속물근성이 내 안에 있음은 분다. 정작 내게 필요한 건 단 하나, 한 영혼을 위해 울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었다.

한 영혼을 위해 울 수 있는가?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주님의 음성, ‘네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네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라는 말씀이 내 마음속을 떠나지 않는다. 주님, 제 영혼에 다시금 회복과 부흥을 주소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역사에 증인으로 서게 하소서. [GNPNEWS] 양동원 선교사

☞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성경적 진리 벗어난 기업을 대하는 기독교인의 태도... “대응에 앞서 기도해야”

동성애를 반대하며 주일에 문을 닫는 기독교 기업으로 유명한 패스트푸드 체인점 칩필레에 최근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부서’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독교인들의 보이콧(불매운동)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적 진리에 어긋난 견해를 밝힌 기업에 대해 기독교인은 보이콧에 앞서 먼저 기도해야 한다고 라이언 데니슨 박사는 데니슨포럼에 소개된 그의 기고에서 조언하고 있다.

칩필레의 DEI 정책은 트위터에서 주목받았고, 보수주의자들이 비난하는 정치적 의식화(woke) 정책과 유사하다고 빠르게 입소문이 났다. 트위터의 DEI 담당 부사장인 에릭 맥레이놀즈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의 말이나 행동보다는 그의 직책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논란의 초점이 됐다.

그러나 칩필레의 DEI 정책은 202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인종, 종교, 성, 신체 조건 또는 기타 여러 가지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오랜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접근 방식

은 비즈니스에도 좋고, 복음에도 좋으며, 직원을 고용하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모든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적 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룬 드라마 ‘선택받은 자(The Chosen)’의 시즌 4의 프로모션을 공개했을 때, 세트 배경에 작은 무지개 깃발이 약 4초간 등장했다. 굳이 찾지 않으면 거의 눈에 띄지 않았고, 대중의 관심을 오래 끌지도 못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해설자 존 루트는 선택받은 자 트위터 공식 계정에 해당 깃발 스크린샷을 트윗하며 “왜 세트장에 프라이드 깃발이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프로그램 측은 “수백 명의 출연진 및 제작진이 우리와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거나 전혀 신념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묘사하거나 예수님을 기리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함께 일할 것이다. 우리를 믿어주시고 메신저(전달자)가 아닌 메시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의 제작자이자 감독인 달라스 젠킨스는 프라이드 깃발이 잠시 등장했



▲ 패스트푸드 체인점 칩필레. 출처: 유튜브 채널 CNBC 캡처

고, 특히 프로그램의 출연진과 제작진이 그 존재를 옹호한다는 이유로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은 시청을 중단할 권리가 있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

하지만 꼭 그래야 할까? 모든 면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진정성 있고 설득력 있게 소개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해온 프로그램을 보이콧하는 것이 현재의 논란에 대한 최선의 대응일까? 필자는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선택받은 자’나 칩필레 레스토랑, 또는 불만이 있을 수 있는 다른 기관을 보이콧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결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도록 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오늘날의 문화에서는 기독교인이 나 비기독교인 모두 감정적인 반응

을 합리적인 반응으로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객관적 진리보다 개인적 진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불가피한 현상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의 해악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선택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해서 그 결정이 자동으로 옳다고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정당화했다(눅 4:1~13).

그러므로 성경적 진리에 어긋나는 견해를 밝힌 기업, 사람 또는 조직을 비난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는 실제로 대응하는 데 들이는 시간만큼이라도 어떻게 대응할지 기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길 권한다. 사탄은 당신이 어떤 문제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보이더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하는 한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를 옹호하는 방법을 아는 데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GN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3. 5. 24 ~ 6. 14 (가나다 순)

개인

김광희 김득기 김명순 김선례 김수미 김신애 김애심 김영순 김혜신 박경희 박신희 신혜경 안민자 안수경 오금애 오세주 우 석 유영권 이보희 이삼연 이영옥 이윤정 이은주 이종훈 이주선 장근혜 정요한 정호진 조명숙 조형광 존/정희 최근희 최임주 최점옥 황일문 기타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겨자씨선교회 고현교회 나죽고예수사는교회 모리아선교회 목자교회 문광교회 반석중앙교회 복음가득한교회 서원교회교정팀 썬 시흥교회 안양그루터기교회 오예교회 주나임교회 주만교회 헬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